

2016. 8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 2016년 8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

## 1. 회의개최

일시	장소	참석인원 수		비고
		위원	방송사	
2016.8.23	대전MBC 대회의실	8/10	6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신종성, 강은혜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대표이사, 오승용 경영기술국장, 김미리 편성제작국장, 최혁재 보도국장, 최종명 방송기술부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5	8	-	-	13	-	13

###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9	4	-	13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8건	8건	7,8월
보도	시사광장 타이틀 변경하길	“시사광장” 타이틀 “시사토론 M”으로 변경	8월
교양	시사프로그램에서 대안제시 예(아파트 경비원 조례)를 보여주길	폐교위기 성전초(7/28), 귀농! 농촌의 미래될까?(8/25) 등 대안제시	7,8월
보도	뉴스데스크 영상 동일 주제라 하더라도 영상은 다르게 편집해서 방송할 것	뉴스데스크 충남 온열질환자 5명(8/5), 최근 2주 온열질환자 40명(8/7), 온열질환자 163명(8/15) 영상 다르게 편집	8월
보도	뉴스데스크 영상취재 시 초상권 침해 없도록 영상, 음성 변조 필요	가짜 경유로 보조금 편취(8/17) 사람 없는 폐교 체험(8/22) 등에서 초상권 보호	8월
교양	라디오 프로그램(MBC초대석) 출연진 청취자들이 공감하게 다양하게 출연	MBC초대석 다양한 인물 섭외 출연 정명희 화백(8/7), 김덕규 교수(대전시립합창단 단장, 8/14), 장인순(전 원자력연구원장 8/28) 등 출연	8월
교양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생방송 오늘) 진행자 역할 중요성	대청댐 금강녹조(8/11), 열병합발전소 반대(8/19), 파행 예지중고(8/25) 등 MC 차분하게 맥을 짚으면서 진행	8월
보도	여름 피서철 가볼만한 곳 소개 필요	<뉴스투데이>에서 남해 설리해수욕장(8/3), 체험마을(8/6), 한산도(8/8), 통영 연화도(8/9) 등 소개	8월
보도	토론 프로그램 패널 부적절한 과격한 용어 사용하지 않게	“권선택 대전시장 기사회생 과제는”(8/28) 등에서 패널 과격한 용어 사용 자제	8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임기: 2016. 5. 31.~2017. 4. 30.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위원장	정민근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장협의회	과학기술단체	
위원	김학선	전 대전MBC 편성국장	대전충남 아나운서협회	언론관련단체	
위원	장백기	세종종합사회복지관장	한국청소년 진흥재단	청소년단체	
위원	성정모	변호사	대전지방 변호사회	변호사단체	
위원	정철상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재)청소년과 사랑사랑충남지회	청소년단체	
위원	이상진	충남연구원 연구실장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과학기술단체	
위원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방송학회	언론관련단체	
위원	박정훈	갤러리아타임월드 백화점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위원	신종성	골프존 네트워크 대표이사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위원	강은혜	대전YWCA 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대전YWCA	소비자단체	

##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8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p>순전히 듣는 매체이자 아날로그 매체였던 라디오가 위기에 봉착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라디오 방송사에서 마련한 대책으로 현재는 지상파 3사의 본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p> <p>서울MBC의 경우는, FM 4u의 ‘두시의 데이트’ ‘정오의 희망곡’ 등의 프로그램에서 보이는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다.</p> <p>이 보이는 라디오는 인터넷을 통해 라디오를 오디오(소리)와 비디오(그림)로 동시에 볼 수 있는 새로운 방송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라디오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히고 있지만 기술적인 면과 비용으로 ‘보이는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방송사는 손에 꼽을 정도다.</p> <p>광주MBC가 몇 개 프로그램에 적용 하고 있는 실정이다.</p> <p>대전MBC도 이 ‘보이는 라디오’의 방송사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 줄 때가 된 듯싶다. 정적인 라디오도 이제는 스튜디오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적인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청취자에게 보다 더 호기심을 안겨 줘야 라디오에 다가 올 수 있다.</p> <p>대전MBC의 경우는, 본격적인 와이드 오락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는 ‘즐거운 오후 2시’가 보이는 라디오에 적격이다.</p> <p>‘괜찮아요 노래방’, ‘노래 교실’, ‘신나고 즐겁고 춤추고 고고고’, ‘고향의 전설’ 등 다수의 출연자와 역동적인 코너들에다 남녀MC의 활기차고 자연스런 진행이 잘 어우러지고 있는 ‘즐거운 오후2시’가 보이는 라디오에 어울린다. 향후 정착이 되면 다른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도 있다.</p> <p>대전MBC도 ‘보이는 라디오’의 방송사로 거듭나야 한다(김학선).</p>	<p>보이는 라디오는 IT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전송망의 확대, 영상기술의 보편화에 따라 라디오 방송의 보완책으로 등장했다. 기술적인 조건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듯싶다. 즉, 보이는 라디오를 하기 위해 스튜디오 부스 내 카메라 설치 가능 여부, 인터넷으로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상의 속도와 인코딩 문제, 홈페이지를 통한 구현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p> <p>기술적 조건이 이루어지면 즐거운 오후 2시 등 초대 손님 중심으로 제작할 수 있고 청취자와의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프로그램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p> <p>보이는 라디오를 시행하게 되면 1단계로 특정 요일이나 특정시간대를 중심으로 일부 편성을 하고 청취자의 반응을 살펴 2단계로 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p>		○	
교양	<p>정규 프로그램이나 특집 프로그램의 PR은 그 프로그램이 보여 주고자 하는 제작 의도를 짧은 시간 안에 담아내야 하는 제약 때문에 프로그램 PR은 그리 녹록치 않다. 따라서 이 PR에 심혈을 기울이곤 한다.</p> <p>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 방송되는 ‘생방송 아침이 좋다’가 가깝씩 시</p>	<p>“생방송 아침이 좋다, 시사플러스, 허참 토크 앤 조이” 등 로컬 프로그램의 예고 PR을 하고 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삼아 시청자들에게 다가가는 예고PR을 지속적으로 제작하겠다.</p>		○	

	<p>청자의 눈길을 끄는 PR을 내 놓곤 하는데, 최근에 제작 방송되는 프로그램 PR은 두 남녀MC의 바깥 일상을 잔잔하게 표현한 점이 좋아 보인다.</p> <p>시청자에게 자연스레 다가 갈 수 있는 PR이었다고 생각한다.</p> <p>시청자에게 프로그램을 보도록 강요(?)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위 프로그램 PR처럼 부담 없이 자연스레 호기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제작 기법이 시청자에게 더 다가 갈 수 있다(김학선).</p>			
<p style="text-align: center;"><b>보도</b></p>	<p>대전MBC보도국 인력의 숫자와 활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p> <p>국가기관의 자료 등을 볼 때, 대전MBC의 방송권역은 다른 지역MBC에 비할 바 없이 광대하다.</p> <p>대전, 충청남도, 세종자치시를 포함하는데 이렇듯 3개 행정권역을 커버하는 지역MBC는 없다.</p> <p>보도국 소속 기자의 수는 대전KBS 36명, 대전방송TJB 29명인데 대전MBC는 22명이다. 다른 지역MBC의 경우 기자의 수가 부산MBC 31명, 대구MBC 30명, MBC경남 32명 등이다.</p> <p>행정권역을 중심으로 재분류하면 부산·경남·울산 지역은 98명, 대구·경북·포항 지역은 53명, 광주·전남 지역은 35명인데 비해 대전·충남·세종은 22명이다.</p> <p>대전MBC 보도국 종사자의 인력 확충이 절대 시급하다고 본다.</p> <p>총원규모도 대전MBC는 다른 지역MBC에 비해 적다. 반면 광고매출액, 총매출액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다. 대전MBC 종사원들의 고충이 크다.</p> <p>대전MBC의 뉴스가 더욱 심층화되고, 탐사 보도 등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도국 인력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p> <p>대전MBC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연명을 통해서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p> <p>대전MBC 보도국 인력의 확충을 위해 대전MBC, 특히 사장의 역할 수행을 기대한다(이승선).</p>	<p>최혁재 보도국장은 답변을 통해, "단순히 숫자만 비교하면 대전MBC의 보도국 기자인원은 적다. 그러나, 적은 인원으로도, 적은 예산으로도, 창의력을 가지면 할 수 있다" 고 강조하였다.</p> <p>이진숙 사장은 답변을 통해, "2015년 12월에 보도국 기자 1명, 엔지니어 1명 2명을 뽑았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p>	○	
<p style="text-align: center;"><b>교양</b></p>	<p>시사플러스의 “대전 아카데미 극장 추억이 되다” 편을 시청하였다. 대전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들에게 아카데미 극장은 추억의 명소인데, 그 곳이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진다는 점에서 아쉬움과 함께 그</p>	<p>아카데미극장’을 끝으로 사실상 대전에 남은 옛 영화관들이 모두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대전 동구 대전역 근처에 있는 대전 아카데미극장은 7월 31일자로 영업을 종료했다.</p>	○	

	<p>동안 무심했던 점이 안타깝다.  동양극장으로 시작해서 50여 년 간을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 그 시절을 산 사람들에게는 추억이 되고, 그런 추억들이 하나 둘 씩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사라진다는 점에서 대전 시민들이 옛 것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각성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 것 같다(성정모).</p>	<p>1964년 개관한 이후 리모델링해 2002년 9개관의 멀티플렉스관으로 운영해왔다. 최소 50~60년간 한 자리에서 옛 영화관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던 것이다. 인근 대형멀티플렉스 개관 등에 따라 이곳을 찾는 관객들의 발길이 지속해서 줄어들면서 점차 위기를 맞았다. 극장 위치가 주거지역이 아닌 데다 주요 관객이었던 원도심 주민들도 대형 멀티플렉스관으로 옮겨가면서 발길을 끊었다. 향수를 일으키는 좋은 소재를 발굴, 방송하겠다.</p>		
<p>교양</p>	<p>시사플러스에서 ‘세종시 부동산 불패신화는 진행 중’ (8월4일)을 다루었다.  전체적으로는 점차 세종시가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세종시 인구도 매년 3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올해 지가변동률도 2%에 달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한다.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에 따라 올 하반기 아파트 공급량과 수요량 소개 등 세종시 부동산이 활황이라는 점이 소개되면서 그 속내가 실수요보다 투기수요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최근 불법전매 관련 구속 사례도 소개되었다. 다만 수요가 있는데도 공급이 제한되어서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논조는 조금 듣기가 불편했다.  아울러 일반론에 가까운 결론, 이미 오를 만큼 올랐으니 투자는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 역시 어쩔 수 없다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상투적으로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덕분에 잠시 노은 등 대전에 거주 수요가 늘어났다가 다시 세종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전거주자로서 걱정도 되었다. 둔산이 세종시로 인해 구도심화된다는 것이다.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해지는 것은 물론이다.  이 부분에 대해 상생방안 등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는바, 상당히 유익한 정보로 생각되었다(성정모).</p>	<p>지난 2012년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출범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현재 조치원 원주민만 10만 명, 이주민은 13만 4천여 명으로 그만큼 이주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세종시 부동산은 연일 호황이다. 평당 600만 원이던 분양가가 800대 중반까지 오른 것이 그 예이다. 지난 7월 분양한 한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200대 1에 달했다.  그러나 불법전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거품이 빠질 경우 서민들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세종시가 자리잡음에 따라 수도권(23.7%)보다는 대전, 충청권(48%) 인구를 흡수하고 있는데, 이른바 세종시발 블랙홀로 인해 인근 지역의 신도시가 구도심이 되어가고 원도심 공동화 현상까지 심화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lt;시사플러스&gt;는 세종시 부동산의 실태와 전망을 알아보고 세종시발 블랙홀을 타계할 수 있는 해법을 이야기하고자 기획하였다.  지적하신 내용은 차기 제작에 유념하겠다.</p>	<p>○</p>	
<p>교양</p>	<p>테마여행 길(8월18일)에서는 삼척 편을 소개하였다. 가수 홍주와 백승일(전직 씨름선수)부부가 아이와 함께 가족여행을 하는 방식으로 꾸몄는데 자연스러운 점이 좋았다.  대한민국의 나폴리라는 삼척 장호항부터</p>	<p>9개 MBC계열사에서 공동으로 제작하는 &lt;테마여행 길&gt;은 전국의 가볼만한 곳을 찾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다.  &lt;테마여행 길&gt; 공동제작 책임자 회의 때 의견을 제시해 더 좋은 프로그램을</p>	<p>○</p>	

	<p>시작해서 투명 카약 체험, 해안 레일바이크 체험 등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레포츠가 소개되었다.</p> <p>산토니아를 닮았다는 삼척 리조트도 소개되었는데 관심이 있던 곳이라 주의 깊게 봤다. 방송으로 보니 꼭 보아줬다는 생각이 들었다.</p> <p>너와집 소개나 감자캐기 체험도 좋았다. 기차테마파크나 유리공예도 소개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다소 철도와 관련된 부분이 많아 지루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삼척에 대해 유익한 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여행을 가게 되면 최대관심사가 맛집 등 식당인데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먹방 쪽 정보를 좀 더 제공했더라면 더 좋았겠다(성정모).</p>	<p>만들도록 하겠다.</p>		
<p>보도</p>	<p>금년 한해는 사상 유례 없는 폭염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한 여름을 어렵게 보내고 있으며 특히 냉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걱정은 국민들의 불평을 극에 달하게까지 하고 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온열 환자의 증가와 축산농가의 피해는 그 어느 해보다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p> <p>이처럼 연일 계속된 폭염은 국민들 관심사 만큼이나 각 방송사 뉴스에서도 많은 분량과 많은 쪽지를 뉴스로 내 보내고 있으며, 폭염경보가 발령한 지난 7월20일부터 8월20일까지 근 한달 간 지방 방송3사의 폭염관련 뉴스를 살펴봐도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p> <p>우선 먼저 보도 건수를 살펴보면 KBS대전의 경우 30여건, TJB 25건, 대전MBC 32여건 등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보도 뉴스 내용도 별반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p> <p>그러나 한편으로는 폭염에 관한 소식이 다른 이슈에 비해 근 한 달 동안 우선 순위의 중요한 뉴스라고 판단하여 거의 매일 보도를 하여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오히려 폭염 뉴스로 인해 사장된 다른 뉴스가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p> <p>그리고 폭염뉴스와 관련 단순 소식을 전달하는 보도가 주를 이루었는데 아쉬운 것은 보도 건수에 비해 여름철 폭염 건강관리 방법이나 폭염 피해 예방법, 무더위 폭염 대비법, 폭염으로 인한 온열병 응급처치 요령 등 시청자들에게 건강관리와 예방에 관한 정보 제공은 지방 방송3사 모두</p>	<p>금년 여름에는 유난히 폭염 특보가 많았다. 폭염 특보 기준은 1)폭염 주의보: 6~9월에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폭염 경보: 6~9월에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다.</p> <p>뉴스에서도 폭염에 대해 신경을 안 쓸 수 없었다.</p> <p>지적한 내용 즉, 여름철 폭염 건강관리 방법이나 폭염 피해 예방법, 무더위 폭염 대비법, 폭염으로 인한 온열병 응급처치 요령 등 시청자들에게 건강관리와 예방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은 향후 관련 뉴스를 제작할 때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겠다.</p>	<p>○</p>	

	<p>소홀했다는 것이다.</p> <p>만약 대전MBC에서 폭염관련 소식과 더불어 폭염에 대비한 건강관리 방법이나 예방법 등에 관한 정보제공이 적절히 함께 이루어졌다면 다른 방송사와 차별화가 생겼을 것이다(장백기).</p>			
<p>보도</p>	<p>뉴스투데이(8월3일)에서 농어촌공사가 충청남도의 ‘보령호 역간척 사업’을 반대한다는 단신뉴스를 내보냈다. 농어촌공사의 주장에 따르면 농업용수 확보의 어려움, 저지대 농경지 침수피해 우려, 땅 속에 매설된 용수관로 사용 못 함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충남도는 이에 대해 ‘금강수계 활용 등 농업용수 확보방안을 이미 마련했고 매설된 용수관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p> <p>짧게 양 쪽 입장을 전달한 단신뉴스에서 “충청남도가 최근 <b>방조제를 없애고</b> 간척지를 갯벌로 조성하는 역간척사업 대상지로.....” 앵커 멘트가 있었다.</p> <p>역간척사업이 방조제를 없애는 것만은 아니다.</p> <p>간척의 반대가 역간척(연안 및 하구생태복원)이다. 간척을 통해 농지와 산업용지로 변한 지역을 갯벌로 복원하는 것이다. 복원은 경관적, 시설적, 생태적 복원이 있을 수 있다. 시설적 복원은 제방을 헐자는 것이고, 경관적 복원도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지만, 생태적 복원은 제방을 헐자는 것이 아니다. 하구 제방을 존치하면서도 해수순환 등을 통해 수중생태계, 하구 바닥생태계를 수질개선과 함께 건전하도록 복원하자는 것이다.</p> <p>뉴스의 공신력은 내용의 정확성에서 나온다. ‘방조제를 없앤다’는 표현은 잘못되었다(이상진).</p>	<p>시청자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보다 정확한 표현을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p>	○	
<p>보도</p>	<p>뉴스데스크(8월21일)에서 ‘외래식물 가시박 확산 생태계 위협’이란 제목으로 가시박의 생태계 교란을 영상으로 잘 포착하였다. 지난 번 회의 때 가시박 영상 중 일부 촬영질이 섞여 잘못 방송이 나갔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 번 뉴스에서는 가시박을 정확히 촬영하여 시청자에게 전달하였다. 충북 미호천과 무심천 유역 일대의 가시박을 제거하는 모습이 소개되었는데, 금강유역은 물론 충남 세종시에도 가시박이 많다.</p> <p>가시박에 대한 생태계 교란의 심각성을 일깨울 겸 이 쪽 지역에도 추가적인 취재가 있었으면 한다(이상진).</p>	<p>금강 유역과 세종시 등지의 가시박에 대해서도 보강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래식물의 환경 피해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 보도도 준비해 보겠습니다.</p>	○	

<p><b>보도</b></p>	<p>뉴스 제작 시 인터뷰 할 때, 초상권 문제로 당사자를 지나칠 정도로 모자이크 처리할 때가 많이 있다. 시청할 때 답답한 느낌이 든다. 법적문제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 동의 하에 촬영하던가 또는 멀리서 촬영하여 원경으로 화면처리 할 방법을 검토하였으면 한다(이상진).</p>	<p>당사자 동의하에 정상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모자이크 편집 기법 등을 보완하겠다.</p>	<p>○</p>	
<p><b>교양</b></p>	<p>시사플러스는 우리 지역 의제를 잘 발굴하여 여론형성에 기여를 한다고 본다. MC인 임세혁 아나운서가 서서 진행을 할 때가 있는데 앉아서 진행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보여진다. 프로그램 제작하는 PD가 출연 사안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소 딱딱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좀 더 부드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박정훈).</p>	<p>시사플러스 진행은 매 회 동일한 방법으로 하지는 않는다. 현재 앉아서 진행을 하고 있다. 출연하는 PD 역시 딱딱한 인상을 주지 않고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p>	<p>○</p>	
<p><b>교양</b></p>	<p>&lt;생방송 아침이 좋다&gt;(8월8일)의 “뉴스&amp;이슈” 코너에서 탄산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으로 탄산수의 이모저모를 다루었다. 이 코너에 장상아 리포터가 취재한 내용을 전달하였는데 카메라에 대본을 들고 읽는 모습이 잡혔다. 사전에 보다 더 리허설이 필요해 보인다(정철상).</p>	<p>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 외부 진행자의 리허설을 더욱 강화하였다. 카메라 리허설 뿐만 아니라 대본 리허설도 같이 하고 있어 보다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시청자와 만나도록 노력 하고 있다.</p>	<p>○</p>	
<p><b>교양</b></p>	<p>&lt;생방송 아침이 좋다&gt;(8월10일)에 “현장속으로” 코너에 서산 삼길포 우럭축제장을 소개하였다. 우럭축제 현장에 직접 나가 있었는데 지역 지상파 방송3사가 모두 나와 취재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 현장에서 만난 대전MBC 취재 스태프들인 카메라맨이나 리포터 등 모두 겸손하여 좋은 인상을 받았다. 취재현장에서의 취재진 태도는 늘 주시대상이다. 각각 대전MBC의 대외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때문에 촬영에 임하는 모습은 중요하다. 이 번 팀들은 박수를 받을만하다(정철상).</p>	<p>현장에 나가 취재하는 스태프들은 대전 MBC를 대표하여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다. 취재에 있어서 독불장군 처럼 상대방 안중에도 없는 행동은 하지 안했는지 등등... 방송 일이라는 것이 혼자 하는 것 아닌 협업을 통해 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보다 사랑받고 친근한 대전MBC가 되도록 하겠다.</p>	<p>○</p>	